

## 신이식 후 발생한 결핵의 치료 : Rifampicin 제외 복합요법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이상주 · 박진아 · 장윤경 · 최범순 · 윤선애 · 양철우 · 김용수 · 김석영 · 장윤식 · 방병기

**목적 :** 결핵 유병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결핵은 신이식 환자의 중요한 이환율 및 사망률의 원인이다. 신이식 환자에서 항결핵화학요법은 Rifampicin, Steroid, Cyclosporin 간의 약물 상호작용 때문에 어렵다. 특히 Rifampicin은 Steroid와 Cyclosporin의 대사를 증가시켜 혈중 농도를 떨어뜨리므로 약물 용량을 증가 시켜야 하며 거부반응의 빈도를 증가시킨다. 저자들은 Rifampicin을 Quinolone계 항결핵제로 대체한 복합요법을 사용하여 신이식 후 발생한 결핵을 성공적으로 치료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방법 :** 1988년 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신이식을 시행받은 218명 중 결핵으로 진단을 받은 14예와 타병원에서 이식을 받고 추적 진료 중 결핵으로 진단을 받은 6예 중 Isoniazid, Ethambutol, Pyrazinamide, Levofloxacin or Ofloxacin을 12개월간 사용하여 치료를 한 15예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 15명 중 남자가 11명, 여자가 4명, 평균나이는 42세 (27-62세), 이식 후 결핵 발생까지의 기간은 평균 55.7개월 (3.3-180.7개월)이었다. 침범장기 분포는 단독 폐결핵 8예, 결핵성 늑막삼출 3예, 속립성 1예, 관절 결핵 1예, 요로 결핵 1예, 위장관 및 임파선 결핵 1예였다. 결핵 발병 당시의 평균 혈청 Creatinine은 1.38 mg/dL (0.7-4.0)이었고 결핵 치료 후는 1.23 mg/dL (0.86-3.8)로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 $p=0.51$ ). 결핵치료와 관련된 독작용은 없었다. 모든 예에서 완치되었고 추적 기간 중 재발은 없었다.

**결론 :** Rifampicin을 Quinolone 계 항결핵제로 대체한 복합요법의 치료효과는 성공적이었다. 이는 신이식 후 결핵치료에 있어 빈번한 Cyclosporin 농도 측정과 Cyclosporin 용량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 및 급성 거부반응 발생률 감소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